

“한때 캐나다에서 열심히 생활하며 공부하는 부웨이 캐나다 학생들에 관한 소식을 전하며 한국에 보다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뉴캐터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웨이캐나다 채병갑원장

목 차

- From 투웨이 캐나다 1
- 투웨이 캐나다 공지사항 1
- 투웨이 생일축하 2
- 투웨이 공항 스케치 3
- 이달의 최우수 유학생 3
- 투웨이 한국학생의 날 4
- 투웨이 학생을 이모저모 4
- 김일정의 캐나다 방문기 5-7
- 투웨이 유학생명회 안내 8
- 투웨이 캐나다 동경 8
- 회사소개 8

FROM TWOWAY CANADA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프트와 매연의 좋은 도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활한 대지를 달리 넓은과 크리스토를 다녀왔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아이들을 만나 마치는 한국음식도 먹고, 졸업반 친학 관련, 개인별 필요한 사항과 어려운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작된 새 학기는 크리스마스과 불발항을 제외하고 내년 6월까지 꾸준히 순가게 공부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준비하는 졸업반 학생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게 하고, 캐나다 대학은 학기가 끝나고 신청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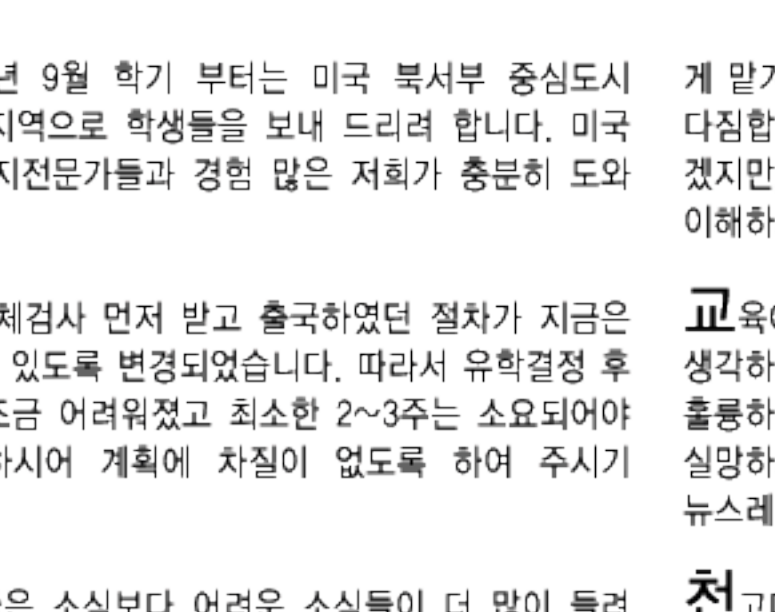
순진한 현자이름 모두를 친절하게 저희 유학생들을 도와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100% 학교에 만족을 합니다. 때문 노력에서, 학교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은 꼭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어려움과 영어 때문에 오는 답답한 있지만 자랑한 캐나다 사람들 덕분에 그리 크게 느끼지 못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말은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자녀를 믿고 자녀의 능력이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난 학생들도 한국에 전화도 많고 전화도 없고, 현지인 친구들과 가족들과 어울려 즐겁게 지내면서 학교와 홈스테이에 적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영어를 터득하여 학교수업도 다룬 학교생활과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는 요령을 터득하여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꾸준히 투웨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이해하고 찾오는 부모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스 넓히고 더 많은 학교로 보내는 캐나다 홈스테이 학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유학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홈스테이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과 현지 책임자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여 가능한 학생에 맞는 홈스테이를 매칭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난 학생들도 한국에 전화도 많고 전화도 없고, 현지인 친구들과 가족들과 어울려 즐겁게 지내면서 학교와 홈스테이에 적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영어를 터득하여 학교수업도 다룬 학교생활과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는 요령을 터득하여 가고 있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기에 부모님께 도움이 되겠다 이런 학기부터 비용이 다소 저렴한 타 지역에 유학생들이 되고자 합니다. 혼자서도 잘 견디며 날 수 있는 학생, 독립심이 강한 건강한 학생들이라면 한번쯤



한국인 없는 지역 투웨이 캐나다 조기유학

No Korean, Real Canadian

Twoway Canada 유학원은 캐나다를 중심으로 수년래의 조기유학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유학 기간과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최선의 효과를 추구하는 유학 프로그램 EIS(English Immersion Study)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Play, Learn, and Grow Together!"

생각해 보자 주시게 바랍니다. 더불어 내년 9월 학기 부터는 미국 북서부 중심도시 스포캐인을 중심으로 한국인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학생들을 보내 드리려 합니다. 미국 유학이 어려가 지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현지전문가들과 경험 많은 저희가 충분히 도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FROM TWOWAY CANADA 공지사항

- 1. 2011년 여름방학 캠프를 참가했던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귀국을 하였으며, 일부 학생은 남아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귀국일정은 11월 2일(수), 3일(목), 28일(일)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 2. 9월부터 2011/2012학년 1학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유학의 보람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 3. 겨울방학 공립학교에 다니시려면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최대 5개월 동안 참가 가능합니다. 신청 및 상담은 전화 02-3444-9090 또는 070-8692-9090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 4. 10월 28일(금) SD71 코러스 벨리 교육청의 Younhee Edmons 선생님이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11월 1일-5일 주간에 부모님반유학을 위한 설명회와 개별미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APPY BIRTHDAY 생일축하

투웨이 캐나다 유학생들 중 이번에 생일을 맞은 학생들입니다.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9 September 배형(Seo, B) 은아(Oct,19) 여림(Oct, 20) 진우(Oct,26) 준희(Oct, 28)
- 11 November 예슬(Nov,1) 지영(Nov,8) 다린(Nov,17) 준영(Nov,28) 영래(Nov,30)
- 12 December 상윤(Dec,6)



FROM TWOWAY CANADA 공항 스케치

2011년 9월 29일 김원규 실장님과 함께 9월 학기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학생들을 캐나다로 출발하였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부모님 곁에서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새 학기를 맞이하여 캐나다로 출발하는 기존 학생들과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공부하게 될 학생들은 기대감과 떨리는 마음으로 캐나다로 출발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9일 김원규 실장님과 함께 9월 학기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학생들을 캐나다로 출발하였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부모님 곁에서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새 학기를 맞이하여 캐나다로 출발하는 기존 학생들과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공부하게 될 학생들은 기대감과 떨리는 마음으로 캐나다로 출발하였습니다.



공항에 배웅 나온 가족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떠나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합니다.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공항이라는 장소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새롭게 펼쳐질 상상에 대한 기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출발하는 학생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경험을 하고 추억을 만들어오기를 기대하며, 떠나는 아이들을 위해 파이팅을 외칩니다.”
투웨이캐나다 정부선 이사

THE BEST STUDENT 정승연 (L.V.Rogers G12)

이번 달의 우수 학생으로는 벨슨 명문 L.V.Rogers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인 정승연 학생을 선정하였습니다.

정승연 학생은 2010년 1월에 캐나다에 와서 2년 만에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는 아주 보기 드문 영재입니다. 이 학생이 영재라서가 아니라, 본인 항상 공부 잘 한다는 겸손하며 항상 다른 학생들을 도와 주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후배들을 일깨워 주는 모범적인 학생이기에 우수학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고마운 학생이기도 합니다.

정승연 학생은 2010년 1월에 캐나다에 와서 2년 만에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는 아주 보기 드문 영재입니다. 이 학생이 영재라서가 아니라, 본인 항상 공부 잘 한다는 겸손하며 항상 다른 학생들을 도와 주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후배들을 일깨워 주는 모범적인 학생이기에 우수학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고마운 학생이기도 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성격 또한 좋은 여는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현지생활 한국학생 구분 없이 많은 친구를 가진 사회성과 친교성이 좋은 학생이기에 학교에서도 아가는 훌륭한 학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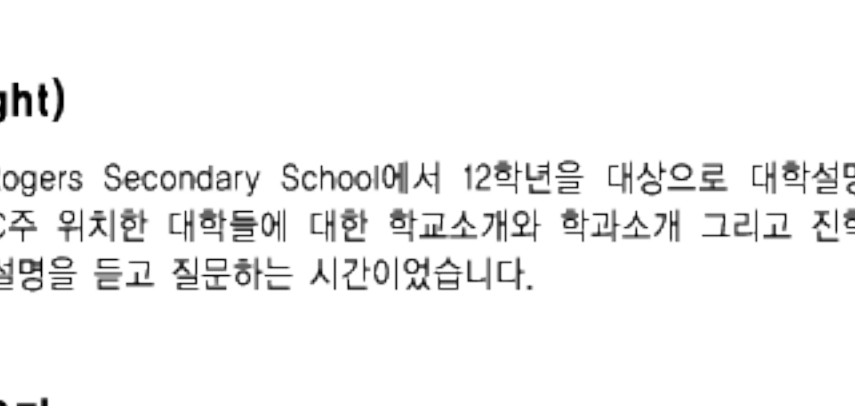
정승연 학생은 2010년 1월에 캐나다에 와서 2년 만에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는 아주 보기 드문 영재입니다. 이 학생이 영재라서가 아니라, 본인 항상 공부 잘 한다는 겸손하며 항상 다른 학생들을 도와 주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후배들을 일깨워 주는 모범적인 학생이기에 우수학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고마운 학생이기도 합니다.

정승연 학생은 2010년 1월에 캐나다에 와서 2년 만에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는 아주 보기 드문 영재입니다. 이 학생이 영재라서가 아니라, 본인 항상 공부 잘 한다는 겸손하며 항상 다른 학생들을 도와 주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후배들을 일깨워 주는 모범적인 학생이기에 우수학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고마운 학생이기도 합니다.

TWOWAY CANADA 한국학생의 날

10월 1일(토) ~ 2일(일) 루노스 레이크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날 이 되었습니다.

10월 1일(토) ~ 2일(일) 루노스 레이크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날 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학생의 날은 크리스마스 지역과 벨슨 지역을 나누어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과 여행하는 학생, 학교생활과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등, 각자의 어려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한 학생들을 빼고는 모두 한국에 모였습니니다. 그 동안 그리고했던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학교에

이번 한국학생의 날은 크리스마스 지역과 벨슨 지역을 나누어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과 여행하는 학생, 학교생활과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등, 각자의 어려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한 학생들을 빼고는 모두 한국에 모였습니니다. 그 동안 그리고했던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학교에

이번 한국학생의 날은 크리스마스 지역과 벨슨 지역을 나누어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과 여행하는 학생, 학교생활과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등, 각자의 어려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한 학생들을 빼고는 모두 한국에 모였습니니다. 그 동안 그리고했던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학교에

TWOWAY CANADA 학생을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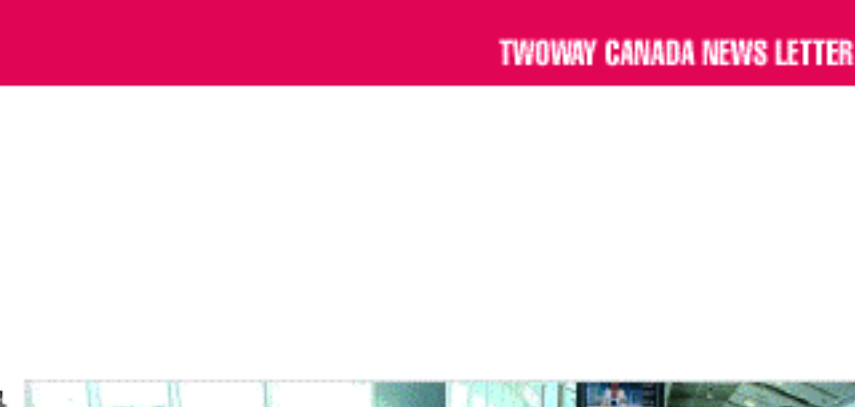
레크팅 액티비티 (Rafting) BC주 대학 설명회 (BC University Night)

레크팅 액티비티 (Rafting) BC주 대학 설명회 (BC University Night)



아생 생태지역 현장학습 (Wildlife Trip) 스케이트와 하키 배우기 (Skating and Hockey)

아생 생태지역 현장학습 (Wildlife Trip) 스케이트와 하키 배우기 (Skating and Hockey)



CANADA Winter Schoo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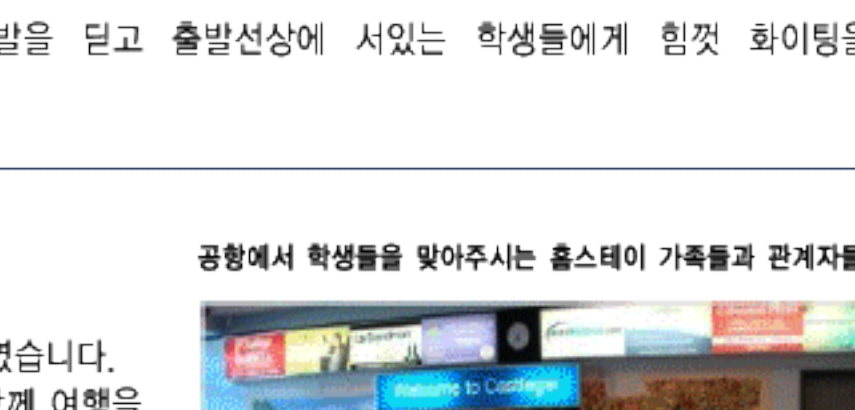
잠시 한국말은 잊어도 좋습니다. 현지인과 어울려 배우는 Real English! "눈으로 듣고 귀로 말하는 영어"

잠시 한국말은 잊어도 좋습니다. 현지인과 어울려 배우는 Real English! "눈으로 듣고 귀로 말하는 영어"



100% 영어 사용 환경에서 배우는 캐나다 유학원이 고민하지 않으려는 유학생입니다.

100% 영어 사용 환경에서 배우는 캐나다 유학원이 고민하지 않으려는 유학생입니다.



TWOWAY CANADA 김항주실장의 캐나다 방문기 (Sept. 2-10, 2011)

Vancouver 도착

Vancouver 도착



10시간의 긴 비행은 마치고 드디어 밴쿠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입국수속을 모두 마치고 국내선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캐나다 도착 후 캐나다 체재이라는 훌륭한 친구, 시차적응에 힘들어하고 헤쳐갈 때 눈부신 홀리데이 장엄 풍경, 포스트투어에서 공부하다가 영어와 불어를 배우러 캐나다에 온 유망생 박예을, 항상 웃음을 건넨다는 등친한 학생인, 인도에서 공부하고 캐나다 공립고등학교로 온 유망생 박예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운까지 시험해본 학생, 피곤함을 달래며, 벨슨을 비행기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모두들 즐거운 모습입니다.

10시간의 긴 비행은 마치고 드디어 밴쿠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입국수속을 모두 마치고 국내선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캐나다 도착 후 캐나다 체재이라는 훌륭한 친구, 시차적응에 힘들어하고 헤쳐갈 때 눈부신 홀리데이 장엄 풍경, 포스트투어에서 공부하다가 영어와 불어를 배우러 캐나다에 온 유망생 박예을, 항상 웃음을 건넨다는 등친한 학생인, 인도에서 공부하고 캐나다 공립고등학교로 온 유망생 박예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운까지 시험해본 학생, 피곤함을 달래며, 벨슨을 비행기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모두들 즐거운 모습입니다.

10시간의 긴 비행은 마치고 드디어 밴쿠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입국수속을 모두 마치고 국내선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캐나다 도착 후 캐나다 체재이라는 훌륭한 친구, 시차적응에 힘들어하고 헤쳐갈 때 눈부신 홀리데이 장엄 풍경, 포스트투어에서 공부하다가 영어와 불어를 배우러 캐나다에 온 유망생 박예을, 항상 웃음을 건넨다는 등친한 학생인, 인도에서 공부하고 캐나다 공립고등학교로 온 유망생 박예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운까지 시험해본 학생, 피곤함을 달래며, 벨슨을 비행기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모두들 즐거운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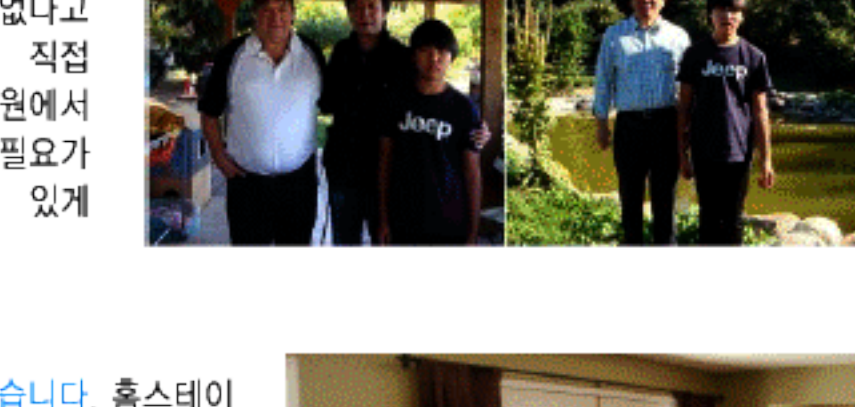
밴쿠버에서 1시간 비행을 하여 벨슨 지역에 있는 캐슬거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공항에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학생들을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밴쿠버에서 1시간 비행을 하여 벨슨 지역에 있는 캐슬거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공항에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학생들을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홈스테이 방문

홈스테이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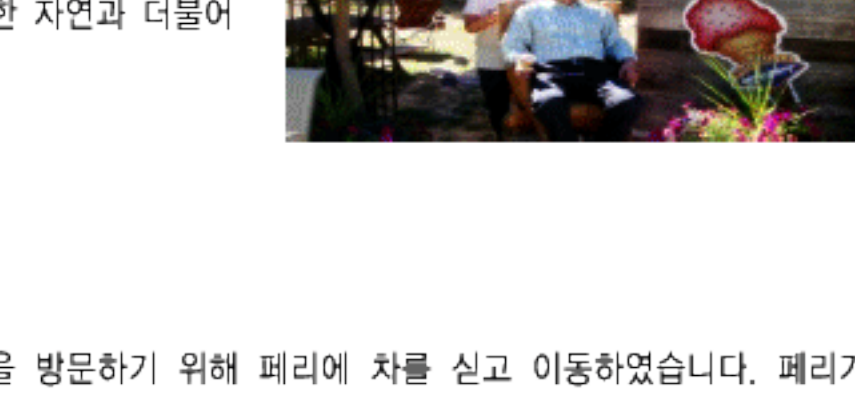
벨슨 지역에 도착한 학생들이 홈스테이에 잘 안착을 하였는지 방문을 하였습니다. 홈스테이를 방문했을 때 캐나다 노동청 직원과 캐나다 이민관과 함께 여행을 떠나, 외출한 관 계로 방문하지 못한 것이 많아, 집안 사정으로 영어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9월말 한국인의 날 행사로 학생 모두를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벨슨 지역에 도착한 학생들이 홈스테이에 잘 안착을 하였는지 방문을 하였습니다. 홈스테이를 방문했을 때 캐나다 노동청 직원과 캐나다 이민관과 함께 여행을 떠나, 외출한 관 계로 방문하지 못한 것이 많아, 집안 사정으로 영어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9월말 한국인의 날 행사로 학생 모두를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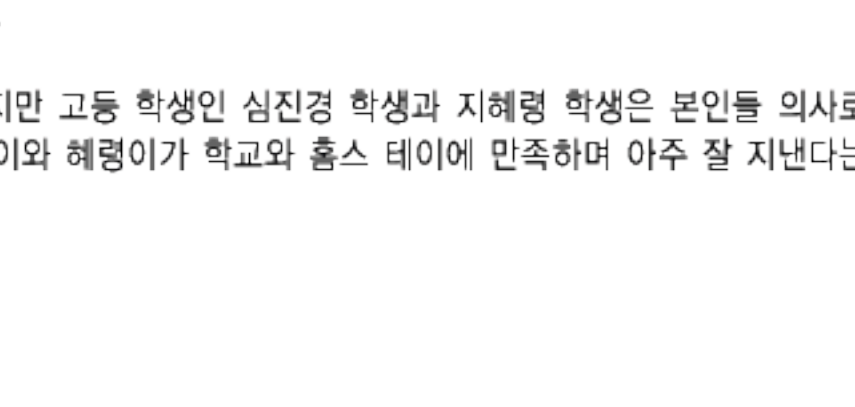
우선 서점구 학생 집을 방문해보니 홈스테이 영어가 참 따뜻하더군요. 혼자 잠 못드는 정황을 위해 가실때 텐트를 치고 카로 모두 함께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보다 많은 배려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도움을 준 홈스테이 영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선 서점구 학생 집을 방문해보니 홈스테이 영어가 참 따뜻하더군요. 혼자 잠 못드는 정황을 위해 가실때 텐트를 치고 카로 모두 함께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보다 많은 배려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도움을 준 홈스테이 영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학생 홈스테이를 방문해보니 한국 문화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홈스테이 부모님들 두분 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을 기록한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 홈스테이 선생님은 홈스테이 가족들과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학생들을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이제는 학생 홈스테이를 방문해보니 한국 문화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홈스테이 부모님들 두분 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을 기록한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 홈스테이 선생님은 홈스테이 가족들과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학생들을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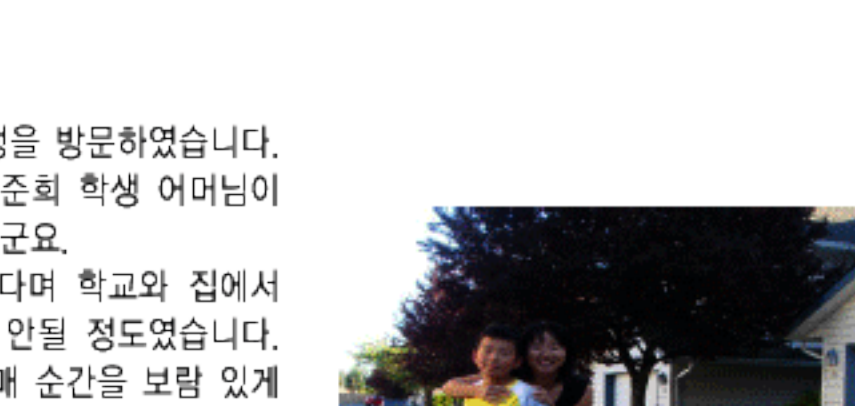
여름 방학캠프와 연계하여 공립학교 단기수업 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령진 학생 홈스테이 방문

여름 방학캠프와 연계하여 공립학교 단기수업 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령진 학생 홈스테이 방문



아침 일찍 출석한 학생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름 캠프를 마치고 연계하여 공립학교 단기수업 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령진 학생입니다. 노동청 직원과 캐나다 이민관과 함께 여행을 떠나, 외출한 관 계로 방문하지 못한 것이 많아, 집안 사정으로 영어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9월말 한국인의 날 행사로 학생 모두를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석한 학생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름 캠프를 마치고 연계하여 공립학교 단기수업 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령진 학생입니다. 노동청 직원과 캐나다 이민관과 함께 여행을 떠나, 외출한 관 계로 방문하지 못한 것이 많아, 집안 사정으로 영어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9월말 한국인의 날 행사로 학생 모두를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학생 홈스테이를 방문해보니 한국 문화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홈스테이 부모님들 두분 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을 기록한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 홈스테이 선생님은 홈스테이 가족들과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학생들을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이제는 학생 홈스테이를 방문해보니 한국 문화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홈스테이 부모님들 두분 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을 기록한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 홈스테이 선생님은 홈스테이 가족들과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학생들을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TWOWAY CANADA 김항주실장의 캐나다 방문기 (Taber, Com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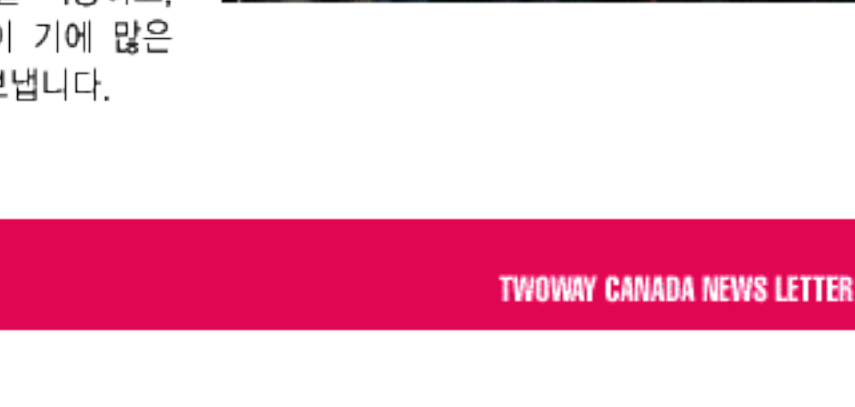
4학년 5월 학생을 데리고 동반유학 가진지 1년 박준희 학생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아버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블루베리 잼을 받았습니니다. 준희 학생 어머니도 코모스 지역은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편안해서 은근히 좋다고 하시더군요.

4학년 5월 학생을 데리고 동반유학 가진지 1년 박준희 학생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아버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블루베리 잼을 받았습니니다. 준희 학생 어머니도 코모스 지역은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편안해서 은근히 좋다고 하시더군요.



준희 학생은 이번 여름 방학 캠프를 다녀오면서 영어를 많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 캠프를 다녀오면서 영어를 많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 캠프를 다녀오면서 영어를 많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준희 학생은 이번 여름 방학 캠프를 다녀오면서 영어를 많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 캠프를 다녀오면서 영어를 많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 캠프를 다녀오면서 영어를 많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예슬이 홈스테이에 도착해보니 캐나다 아이들과 놀고 있는 예슬이를 보았습니다. 한국인과 놀고, 항상 영어만 말하며 하는 생활이 눈에 띄었습니다. 홈스테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영어가 많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번 예슬이가 잘 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일만 남았습니니다. 포로로갈에서 5년 동안 공부한 예슬이 기어 많은 걱정은 하지 않지만, 혼자 떨어져 있어서 항상 걱정이 되지만 파이팅을 보겠습니다.

예슬이 홈스테이에 도착해보니 캐나다 아이들과 놀고 있는 예슬이를 보았습니다. 한국인과 놀고, 항상 영어만 말하며 하는 생활이 눈에 띄었습니다. 홈스테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영어가 많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번 예슬이가 잘 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일만 남았습니니다. 포로로갈에서 5년 동안 공부한 예슬이 기어 많은 걱정은 하지 않지만, 혼자 떨어져 있어서 항상 걱정이 되지만 파이팅을 보겠습니다.



TWOWAY CANADA 유학설명회안내

투웨이 캐나다 유학원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논현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조기유학, 동반유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웨이 캐나다 유학원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논현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조기유학, 동반유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소 : 투웨이 캐나다 유학원 논현동 본사 세미나실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 문의 : 02-3444-9090, 070-8692-9090

- 참가 교육청 : SD #71 코러스 벨리 교육청
- 설명회 일정 : 2011년 11월 3일(목) 오전 11시
- 참가 문의 및 신청 : 02-3444-9090, 070-8692-9090

*참가 설명회 일정은 추후 변경가능하오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Korean, Real Canadian

캐나다 조기유학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투웨이는 한국인 없는 영어 정주지역을 추구합니다.

다니스틀링, 관리료조기유학, 부모동반유학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7 벤틀리아파트빌딩 410호 TEL : 02-3444-9090, 070-8692-9090